[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땐 오관게·축원으로 마무리

김현태 기자

교계 입력 2021.10.03 15:11 수정 2021.10.03 15:13 호수 1604 댓글 1

스님들은 가사, 재가불자는 '낙자' 수하고 천리수행 진행
사성암 출발 화엄사 도착, 조실·주지스님 등 순례단 맞이

천리순례에는 스님뿐 아니라 재가불자도 가사를 수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에서 천리순례용으로 제작한 낙자(絡子)가 재가불자들이 수하는 가사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순례가 10월3일 구례 사성암에서 화엄사까지 2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새벽 3시 숙영지를 나선 순례단은 남도의 젖줄 섬진강 물길 따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겨 화엄대종찰 화엄사로 향했다.

이번 천리순례가 지난해 자비순례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의례의식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의례는 종교의 성스러움을 더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고양시켜 주는 필수적인 요소다. 해서 이번 천리순례의 하루는 여법하게 시작돼 여법하게 회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벽 도량석이 대표적이다. 순례단은 새벽 3시 목탁 소리로 천지 만물을 깨우고 청아한 독경소리로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지금 머무는 그 자리가 청정한 도량이자 부처님 계신 자리이며 내딛는 걸음걸음이 부처님 닮아가는 과정임을 일깨우는 시간이다. 이어 오분향례와 칠정례를 통해 삼보에 귀의하고 신심을 북돋는다. 한글반야심경 봉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시간도 갖는다.

이주민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코로나 극복과 치유 위한 영축산 개산의 축제

쌍계총림 쌍계사, 개산 1297주년·창건 1181주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1회 산해원문화상 후보…
양주 청련사, 중양절 맞아 생전예수시왕칠일재…
전국비구니회, 불교유적 가톨릭 성지화 대응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
불교환경연대, 20주년 맞아 100일 기도 진행
조계종 사노위, 기후정의 실현 촉구 행진
달라이라마 "무조건적인 믿음 경계하고, 사유…
유승민 후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불교…

연재

신현득의 내가 사랑한 동시
112. 유동숙의 '가을 비 소리'

김호귀의 공곡집과 선문답
83. 제82칙 덕산상당(德山上…

이필원의 붓다 교화에 나서다
82. 재가신자가 병에 걸렸을 …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순례 중 공양 때마다 합송하는 공양기도문이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순례 중 공양 때마다 합송하는 공양기도문이다. 기존 공양게의 핵심 내용을 57자로 함축해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천리순례에는 스님뿐 아니라 재가불자도 가사를 수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에서 천리순례용으로 제작한 낙자(絡子)가 재가불자들이 수하는 가사다. 낙자는 오조가사를 축소한 전통 법의 중 하나로 가사색 천에 삼보륜과 '삼보사찰 천리순례' 문구를 새겨 넣었다.

김효선의 어르신을 위한 Q&A
17. 가족돌봄

명법문 명강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많이 본 뉴스

01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02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갚아야죠"
03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04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05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06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07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08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땐 오관게·축원으로 마무리
09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10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성남 정토사 주지 법원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 군법사, 교법사 등이 상용하는 낙자를 제안해 채택됐다”며 “낙자를 수한다는 건 삼보를 만나고 예경하는 자리에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으로, 이번 순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순례대중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례는 동참자들에 대한 축원과 저녁예불을 봉행한 후 삼배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으로 하루를 회향한다.

한편 3일차 회향지 화엄사에는 조실 명선,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불자들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명선 스님은 순례대중 한 명 한 명에게 108염주와 단주를 걸어주며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발원으로 천릿길 순례에 나선 순례대중을 격려했다.

조실 명선 스님은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원력으로 만행결사에 나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과 동참대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이 화엄사를 찾아준 인연과 화엄사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희망의 선근공덕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지 덕문 스님도 “청명한 가을날 화엄문화축제가 열리는 화엄사에 방문해준 순례단을 환영한다”며 “삼보사찰 순례단 전원이 회향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걷는 장엄함을 놓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클래식 선율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다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1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한심한 (비회원) | 2021-10-04 17:51:46 삭제

이 경비와 대중공양금으로
포교나하지 이 스님들요
정신차리소

답글 1 2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